

## 최불암, 재활 치료 전념 중...MBC 특집 다큐 5일 방송

등록 2026.05.04 18:41:32



최불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최불암(86)이 재활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자전적 다큐멘터리 직접 출연을 고사했다.

MBC TV는 자사 특집 다큐멘터리 '파하, 최불암입니다' 1부 방송을 하루 앞둔 4일 이렇게 밝혔다.

최불암은 재활에 집중하라는 가족의 뜻에 따라 카메라 앞에 직접 서지는 않으나, 지난해 7월부터 기획 단계에 참여해 자신의 메시지를 작품 전반에 심었다.

이번 다큐는 최불암의 연기 인생을 음악과 함께 돌아보는 라디오 형식으로 구성됐다. 배우 박상원이 프리젠티어를 맡는다. 1부에서는 박인환, 이종섭 등 예술가들과 교감했던 소년기부터 무대 위 열망이 가득했던 청년 시절의 '인간 최불암'을 조명한다.

아울러 고(故) 신성일·이순재의 윗세대 역할을 수행하며 겪은 노역 연기의 고뇌와 '수사반장', '그대 그리고 나' 등 연기 인생의

주요 궤적을 살핀다.



[서울=뉴시스] 최불암. (사진 = MBC TV 제공) 2026.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MBC는 "최불암은 개인사를 넘어 한국 사회의 변화상과 시대의 풍경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는 재활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청자들에게 인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다큐는 오는 5일 오후 9시 방송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